

대머리는 커피를 많이 마셔라!

피셔 박사, 카페인이 남성의 모낭 성장촉진 ... 하루에 60잔 마셔야

대머리 치료의 비결은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예나대학의 토비아스 피셔 박사는 국제피부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카페인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남성의 모낭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월23일 보도했다.

그러나 피셔 박사는 카페인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모낭에 도달하자면 하루 커피를 60잔은 마셔야 하기 때문에 두피에 바를 수 있는 카페인 용액을 독일의 화장품기업 Alpencin이 개발했다고 밝혔다.

피셔 박사는 대머리의 원인은 대부분 모발이 자라는 두피의 작은 주머니인 모낭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만드는 화학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에 지나치게 노출되면서 모낭이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카페인은 DHT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피셔 박사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남성 14명의 두피에서 모낭을 채취해 시험관에서 카페인 용액에 넣어 8일 동안 자라게 한 결과 모낭 속의 모발이 33-40% 자라났다고 밝혔다.

두피에서 채취된 모낭을 테스토스테론을 첨가한 용액에 넣었을 때는 훨씬 느린속도로 모발이 자랐다고 피셔 박사는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30>